

이혼

가장 많고

70% 이상이 가사사건

한국가정법률상담소 94년 상담사건 통계분석

95.3.24

한국가정법률상담소(소장 김홍한)가 지난해 접수한 상담사건을 종합해 통계자료집을 펴냈다.

통계자료집에 따르면 서울 본소의 경우 순회, 출장, 노인, 자녀상담을 포함한 총 상담건수는 2만7천29건(타지역 별 상담 통계로는 대전(6,804), 광주(6,283), 부산(4,905), 인천(4,589) 순). 이중 주택상담이 1만4천8백

90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면접상담이 1만1천8백3건이었다. 이에 대한 처리는 법률상담이 2만6천6백3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화해조정이 3백88건, 법률구조가 20여건 등이다. 이중 남녀 비율은 각각 18.2%, 81.8%로 나타났다.

상담내용을 보면 일반 민사, 형사사건이 많은 지부에 비해 본사의 경우 이혼이 4천

3백27건(46.7%)으로 가장 많고 부부관계(26.7%), 남녀관계(4.2%) 등 70% 이상이 가사사건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내담자는 남녀 모두 30대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남자는 40대, 20대 순, 여자는 20대, 40대 순이었다. 내담자의 직업은 남자는 회사원, 무직 순이었고, 여자는 무직(64.8%), 상업, 회사원 순이었다.

이혼사유는 다음의 왼쪽 표와 같다. 93년과 비교해 볼 때는 여성의 6호 사유의 경우 38.7%에서 36.8%로 1.9% 감소한 반면 3호 사유는 31.9%에서 34.0%로 2.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남편의 구타, 폭행이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1호 사유는 작년과 같은 21.2%로 남편의 외도, 부정행위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혼인생활기간을 살펴보면 파탄의 시기가 결혼 후 3~4년이 11.0%, 1~2년이 10.4%, 5~6년이 10.1%, 9~10년이 9.7% 등으로 나타났다.

〈사유별 이혼 분석〉

	민 법 제840조	남자 (명)	백분율 (%)	여자 (명)	백분율 (%)
1 호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110	19.1	795	21.2
2 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161	28.0	230	6.1
3 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3	7.5	1,277	34.0
4 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0.7	13	0.4
5 호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7	1.2	26	0.7
6 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	241	42.0	1,382	36.8
협의이혼		9	1.5	29	0.8
합	계	575	100.0	3,752	100.0